

고라쿠 가마

도쿠나가 고스케(생몰년 미상)가 1865년에 창설한 고라쿠 가마는 도쿠나가 도자기 주식회사의 상호입니다. 현 5대 사장인 도쿠나가 다카노부(1967~)는 고라쿠 가마를 아리타 지역에서 가장 친숙하고 이용하기 쉬운 도자기 공방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라쿠 가마는 행복을 불러일으키고 아리타 지역의 역사와 커뮤니티로 이어지는 작품을 만드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라쿠 가마에서 만들어지는 제품의 종류는 대를 거듭하면서 다양해졌습니다. 20세기 초반의 수십 년 동안은 심플한 타입의 화로 제작에 중점을 두었지만, 1930년대에는 일본군용 식기를 생산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다시 가정용 자기와 공업용 세라믹에 중점을 두었으며, 1962년에 현재 위치로 이전했습니다. 아리타 지역에 있는 많은 도자기 공방에 비해 고라쿠 가마는 적극적으로 근대 기술을 빠르게 도입했으며, 가스 가마를 사용하여 생산 능력을 높였습니다. 또한, 아리타 지역 최초로 전사인쇄 기법을 확립했으며, 지역에 있어서도 개척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전성기에는 250명 이상의 직원을 두었습니다. 현재 직원 수는 30~40명 정도로 줄었지만, 세계 각국의 아티스트와 협력하여 혁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13년에 고라쿠 가마는 아리타 지역의 도자기 공방 중 최초로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아티스트들은 공방 공간과 기재를 사용할 수 있으며, 고라쿠 가마에서 일하는 장인 및 도공과 함께 작업하면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도자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디자인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생산의 모든 공정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부지 내에는 게스트 하우스가 있으며, 세계 각국에서 온 아티스트들이 협업하거나 함께 일하며 아리타 도자기 제작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00명이 넘는 아티스트가 일본을 방문하여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2023년에는 한국 아티스트 정유경(*Yugyong Jong*) 씨가 방문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공장의 본관은 1960년에 철근으로 개축할 예정이었던 인근 초등학교의 목조 교사를 이축하여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건물 일부는 아웃렛 스푼으로 탈바꿈되었으며 보물 찾기가 이루어지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보물 찾기 체험은 고라쿠 가마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입니다. 판매되지 않았거나 판매할 수 없었던 작품은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보존되고 있습니다. 방문객은 제공되는 장바구니에 쌓여 있는 나무 상자에서 제한 시간 내에 원하는 만큼의 작품을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 보물 찾기에는 베이직 헌팅과 프리미엄 헌팅 2종류가 있으며, 프리미엄 헌팅에는 더 색이 선명하고 고급스러운 상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택의 폭은 거의 무한대입니다. 나무 상자에 들어 있는 작품은 시작품과 남은 상품, 20년 이상 전의 옛 디자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메이지 시대의 학교에 사용된 목재를 재이용한

것처럼 이 보물 찾기도 오래된 상품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훌륭한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고라쿠 가마에 있어서는 창고에서 오랜 세월 먼지 쌓인 재고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인 것과 동시에 자기 애호가들에게는 즐겁고 이용하기 쉬운 체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